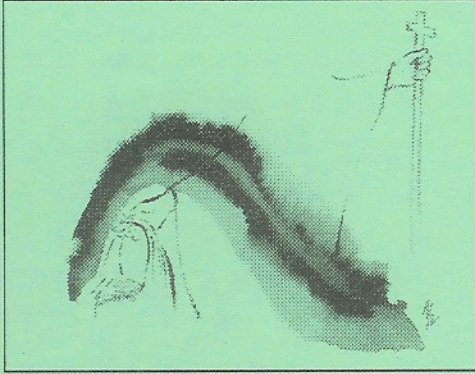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8주일(묵주기도 성월/전교의 달)
제29권 46호(나해) 2009 · 10 · 11

[묵상]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마르 10,21)

천지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시어야 할 당신께서
오히려 그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죄 많은 인간의 삶을 함께 살아 주셨음을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 역경과 불의를
십자가에서 당신과 더불어 못 박았음을
이로써 인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음을
모든 죄인의 구원이요 메시아가 되셨음을
머리와 마음에 깊이 새기나이다.
저희로 하여금 불타는 사랑으로 봉사하여
주님의 손과 발과 마음이 되게 하소서.
저희가 손이 되어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게 하시고
발이 되어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저희 마음을 비우시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오! 하느님, 당신의 피조물인 저희 각자는
비록 가진 바 없고, 미소하기 짝이 없으나
이 우주에서 하나뿐인 당신의 걸작품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오니
저희를 받아 매일 매일 새롭게 다듬어 주시어
하루를 접을 때 오늘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희망찬 내일을 꿈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9:00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PACEM모임(매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7:3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2:3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310)326-435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이숙자 수산나 (생)이태호 바오로, 정다현, 민슬기 로사리아, 봉효운 솔리나, 성호재 시몬 & 유나, 성영림 엘리사벳, 성유진 로렌스, 이건 마이클, 이준 마커스 베드로, 백삼위 마라톤 동호회, 최성욱 사제, 이장환 사제
주 일 낮 미사	(연)이금순 마리아, 한병열 토마스, 이상현 베드로, 이현호 요한, 최복덕 마리아, 이영자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김영수 데레사, 고준희 제임스, 김길제 안드레아, 송봉규 요셉 (생)오창애 안나, 권순길 체칠리아, 영희 가보라, 박광식 바오로 & 박정희 마리아, 이종민 요셉, 이종원 베드로 & 아네스 가정, 홍 관 요셉, 이덕철 루카 & 비비안나 가정, 임종택 베르나르도, 오현옥 말비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7,7-11
화답송	◎주여,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한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날수 셀 줄 알기를 가르쳐 주시어, 우리들 마음의 슬기를 얻게 하소서. 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오리까? 당신의 종들을 어여뵈 여기소서.◎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한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히신 그날 수 만큼, 우리가 불행하던 그 햇수 만큼, 그만큼 우리를 즐겁게 해주소서.◎ ○당신이 하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그 자손에게 보이소서. 하느님 우리 주의 어지심이 우리 위에 내리옵소서. 우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우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4,12-13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음	마르코(Mark) 10,17-30<또는 10,17-27>
영성제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41	182
봉헌	378	191,261
성체	감사해	307,302
파견	321	326

서론

불행하게도 오늘날까지 과거의 사회적 불의들은 극복되지 않고 있으며, 그것들이 비록 새로운 세계 질서의 관점에서 진보를 위한 요소들이라고 제시되고 있다고 해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더욱더 통탄할 형태의 불의와 억압으로 한층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모든 나라 주교단의 협력 결과인 이 회칙은 인간 생명과 그 불가침성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재천명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개개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절박한 호소이기도 하다. 생명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봉사하라! 오직 이 방향에서 만 당신은 정의, 개발, 참된 자유,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호소가 교회의 모든 아들딸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이 호소가 모든 남녀의 선익과 사회 전체의 운명에 관심을 가진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6) 믿음 안에 본인의 모든 형제자매와의 깊은 일치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이들을 향한 참된 우정으로 고취되어, 본인은 생명의 복음을 다시 한 번 숙고하고 선언하고자 한다. 이 생명의 복음은 양심을 비추는 진리의 광채이며, 어두워진 시각을 바로잡는 밝은 빛이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늘 새로운 도전들에 충실하고 확고부동하게 맞서 나가기 위한 확실한 원천이다.

본인은 가정의 해의 강렬한 체험을 회상할 때면, 마치 "세계의 모든 가정에게" 보낸 교서를 완결 짓기라도 하듯이, 새로운 확신으로 모든 가정에 기대를 걸게 된다. 그리고 가정을 돕기 위한 총체적 참여가 모든 차원에서 다시 일어나고 강화되어, 오늘날-수많은 어려움과 중대한 위협들 가운데에서도-가정이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언제나 "생명의 성역"으로 남게 되기를 기도드린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 즉 생명의 백성, 생명을 위한 백성에게, 본인은 가장 긴급히 호소하고자 한다. 이 호소는 우리 함께 이 세상에 우리의 새로운 희망의 징표들을 제공하고, 진리와 사랑의 참된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정의와 연대성이 증대하고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가 확정되리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계속)

“지난 세대를 살펴보아라. 누가 주님을 믿고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누가 그분을 경외하면서 지내다가 버림받은 적이 있느냐? 누가 주님께 부르짖는데 소홀히 하신 적이 있느냐?” (집회서 2,10)

와서 나를 따라라

‘한국인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매년 실시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자료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39.2%), 가족(28.9%), 돈(16.2%), 친구(4.8%) 순으로 비중이 크며 종교는 2.8%라고 합니다. ‘돈’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다른 연구조사에서 ‘나는 물질주의자이다’라는 비율이 50.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잘 아는 청년신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도 스텁없이 ‘그야 물론 돈이지요!’ 하고 대답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떤 부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우선, 이 사람은 높은 정신적·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이 선(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17절) ‘선은 모든 것이 욕구하는 것’(아리스토텔레스)이라면, 인간의 모든 욕망의 종점은 선이라 하겠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만물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선(善)자체이신 하느님 한 분 뿐이십니다.(18절)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부자에게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21절)” 하고 요청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부자는 주님의 이 고귀한 초대를 거부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성 안에는 근원적으로 선을 지향하고 갈망함과 더불어 이에 저항하는 뿌리인 물질적인 소유욕이 깊게 도사리고 있음을 밝혀줍니다. 교회는 ‘인간은 무엇을 소유(所有)하느냐보다 오히려 어떠한 존재(存在)이냐에 따라 가치를 지닌다.’(사목 현장 35항)고 가

르치는데 인간이 ‘존재’로는 선(善)을 갈망하지만 실제로는 소유욕에 사로잡혀 주저앉고 마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 이율배반과 모순을 극복하는 길을 오늘 예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제시하십니다. 사실, 이 계명들을 꼼꼼이 들여다보면, 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부자유스럽게 하는 금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험악한 세상 안에서 무방비 상태로 던져진 나약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려는 하느님의 파스한 배려인 것입니다. 이 계명의 근본 의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외적인 삶을 규정하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율법이 아니라 선(善) 자체이신 하느님 앞에 우리가 서도록(18절), 또 율법의 완성이시며 그 자체이신 당신을 만나고 함께 살기 위하여 따라 나서도록(21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직면하는 외적 생활과 내면 생활의 분리, 신앙과 행동의 분열을 보게 됩니다. 이 이면에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불신과 불순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을 받아 누리기는 원하면서 이 하느님의 사랑에 인격적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비신앙의 풍토 속에서 신학자 본 회퍼는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를 강조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응답이 바로 이를 말해줍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28절)

◆구요비 읍 신부 | 프라도회 한국 책임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중철 아브라함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장미정 로사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박해경 레나타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신덕례 테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문재원 클로틸다	황지영 안젤라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서용숙 에스텔	전하연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이장환 마르띠노 신부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신부님, 환영합니다."

이장환 마르띠노 신부님께서 10월 10일 백삼위 본당 주임신부로 부임하셨습니다. 하느님 백성인 우리들 구원을 위한 첫째가는 조력자요 위로자인 신부님의 거룩한 품위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앞으로 신부님께서 백삼위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영혼을 돌보며 성무를 잘 집행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장환 신부님의 약력은 -

- 서품일: 1993년 2월6일(부산교구 주교좌 본당)
- 프랑스 유학: 1994년 3월~2002년 1월, 철학 전공
- 연양 성당 주임: 2002년1월부터 3년간
- 부산가톨릭대 교목처장 재직: 2005년~2009년 9월

◆ 예비자(부활 세례반) 환영식

예비자 교리반이 시작됩니다. 10월은 전교의 달이기도 합니다. 예비자 모집을 위해 전신자들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영식: 10월18일(주일) 11시 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10월2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파푸아 뉴기니 아동을 위한 도서 기증

- 목적: 문명과 동떨어진 밀림속 학교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동들에게 책을 보내줍니다.
- 도서기준: 유치원~초등학교 수준의 만화, 동화 등 영어책
- 수집기간: 10월18일(주일)까지
- 수집장소: 천교장 앞쪽에 Box 비치
- 문의: 이재용 안드레아 ☎(949)502-1213

◆ 백삼위 골프 토너먼트

- 일시: 10월24일(토) 오전 10시
- 장소: 로스 세라노스 컨트리클럽(15656 Yoba Av. Chino Hills, CA 91709)
- 문의: 정충로 골프회장 ☎(310)991-6966

◆ 안나/요셉회 가을 온천 관광

- 일시, 장소: 10월27일(화),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출발: 당일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
- 55세 이상 형제 자매님들의 신청 바람. 56명 정원
- 회비: 교우 \$20, 외부인 \$30
- 준비물: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샌들
- 신청: 이영희 카타리나 안나회 회장 ☎(310)518-1736
김금자 테레사 총무 ☎(310)539-9526

◆ 컴퓨터 무료 교육

- 내용: 컴퓨터 기초(인터넷 등)
- 일시: 매주 화, 목, 토 오전 10시~11시30분
- 교육내용: 디지털 카메라 사진촬영(13,15,17일)
워드, 음악, 사진 등 총복습(20,22,24일)
- 문의: 권진열 피데스 요셉회 총무 ☎(310)800-3592

◆ 성체신심 세미나 CD 판매

지난 8월26일~29일까지 본당에서 현요안 요한 신부의 지도로 개최됐던 성체신심 세미나의 CD가 완성됐습니다. 그날의 성령충만 기쁨을 되새기며 많은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 값: \$20(사무실)

◆ TV 와 DVD 플레이어 기증 바랍니다.

- 주일학교에서 새학기를 맞아 TV세트와 DVD 플레이어를 필요로 합니다. 뜻있는 교우분들의 기증을 바랍니다.

◆ 백삼위 마라톤 동호회 '롱비치 마라톤' 참가

- 오늘 주일(11일) 개최되는 롱비치 마라톤에 본당 마라톤 동호회 회원 11명이 참가합니다. 이들 건각들의 완주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참가자: 유명련 마리아 & 유영균 우루마노 부부, 권순애 테레사, 이영석 크리스토폴, 정영연 크리스티나, 최재은 베드로, 윤희동 안토니오, 최현찬 안드레아(이상 Full 마라톤), 이명순 크리스티나, 최태순 도로테아, 이명렬 라파엘(이상 1/2 마라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11일(주일): 신임 신부님 축하 전신자 국배대접
- 10월18일(주일): 토런스 서1반(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김기정	김대우	김병철	김선제	김양금
	김영경	김옥보	김정엽	김종렬	김준호	김진숙
	김현숙	김형순	노찬술	노혜숙	문충한	민기남
	박음전	박준구	박진심	변복순	안민수	우영주
	유은영	유희연	이귀란	이봉덕	이상석	이연행
	이영숙	이영희	이은록	장영우	정동호	정지숙
	조경림	조윤영	차병용	차인수	최수복	최태훈
	한금순	황학수				
					합계:	\$3,405

미사헌금: \$2,948

2차헌금: \$1,152.75

성전헌금	구자운	김기정	김대우	김선제	김양금	김옥보
	김정엽	김준호	김현숙	김형순	노찬술	노혜숙
	문충한	민기남	박준구	변복순	안민수	우영주
	유은영	유희연	이귀란	이상석	이영숙	이영희
	이은록	이일길	장영우	정동호	정지숙	조경림
	조윤영	차병용	차인수	한금순		

합계: \$2,340.33

특별목적헌금: 박상대 사제

재활용수입: \$140.33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 오늘 주일(11일)은 콜럼버스 데이 연휴로 주일학교/한국학교 수업이 없습니다.
- ◆ 중고등부 피정
 - 주제 : How we treat others.
 - 일시 : 10월23일(금) 오후 6시30 분~11시30분, 성당
 - 대상 : 7학년~12학년(주일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됨)
 - 참가비: 없음
- ◆ 첫영성체/견진교리반 등록
 - 2학년(첫영성체반), 9학년(예비 견진교리반), 10학년(견진 교리반)에 해당하는 학생은 주일학교 새학기에 꼭 등록해 주십시오.
 - Liability 문제로 교구 지침에 따라 주일학교 학생은 반드시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가주 소식

- ◆ 가톨릭 장애인 복지회 세미나
 - 일시 : 10월18일(주일) 오전 11시~오후 2시
 - 주제 :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메디칼, GR, SSI,SSA, 푸드 스탬프 등 변경된 복지혜택 전반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회관
- ◆ 유빌라테 제2회 성음악 캠프(LA 국악 성가 배움터)
 - 일시 : 10월24일(토) 오전 9시~오후 9시
 - 장소 : LA 성삼 한인천주교회
 - 강사 : 강수근 바오로 마리아 신부(예수고난회)
 - 참가비 : \$40(중식, 석식, 악보집 포함)
 - 문의 : 김두진 바오로 지도신부
단장 이항 요셉 ☎(626)216-4555
- ◆ 남가주 한인 가톨릭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11월14일(토) 오후 2시
 - 장소 : 홀리크로스 묘지(5835 W. Slauson Av. Culver City, CA90230)
 - 주관 : 남가주 한인 사제협의회
- ◆ 남가주 한인 가톨릭 청년연합회 위령성월 피정
 - 일시 : 11월20일(금) 오후 9시~22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 PCCCI 빅베어 레이크 컨퍼런스 센터
 - 주제 : '영원과 하루'
 - 대상 : 각 본당 소속 청년(선착순 100명), *참가비 : \$110
 - 문의 : 박치훈 스테파노 ☎(213)675-2755

이번 주 단체 모임

이장환 신부님 환영친교자리	낮 미사 후 친교장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김양금 안나 518-3041 10/9(금) 오후 7시30분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김정웅 요한 720-8240 10/31(토) 오후 7시
	3	신덕레 데레사 634-6169	신덕레 데레사 634-6169 10/15(목) 오후 8시1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김교복 레오 328-1817 10/10(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토마스&클라라 424-241-5988 10/16(금) 오후 7시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0/13(화) 오전 10시 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배난군 세레나 325-7733 10/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0/16(금) 오전 10시30분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신현정 루시아 213-503-6035 10/9(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오스테파노 352-4679 10/9(금) 오후 7시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	김민수 바오로 530-3232	김민수 바오로 530-3232
	2	박혜경 레나타	이병우 마리노 953-7903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10/7(수) 오후 2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오희중 마르코 377-0828 10/9(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0/16(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이영석 크리스토폴 377-7063 10/16(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0 10/13(화) 오전 10시30분, 성당

◎ 서병교 라파엘 형제의 ‘파푸아 뉴기니’ 선교 체험기 (4) ◎

MALALA 본당에서 장호창 신부님과 3일 동안의 선교체험을 마친 후 박영주 안드레아 신부님이 계신 HALOPA 본당으로 향했다. 이곳은 내가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선교체험을 하고 싶었던 곳이었다. 이곳은 정글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본당으로써 5개정도의 산을 넘어야하는데, 산 아래에서 도보로 산을 가로질러 오르면 약 3-4시간, 차로는 약 2시간(산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생명을 하느님께 담보해야 함)이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우리는 곡예를 하며 차량으로 이동했다. 본당에 올라오기 전에 신부님과 나는 시장에 들러 각종 음식재료를 샀기 때문에 본당에 도착한 후 제일 먼저 그 것들을 냉장고에 보관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석유를 사용하는 브라질산 냉장고가 그 동안 선교 체험단들의 장기간의 행사 때문에 연료를 보충해 주지 못해서 작동이 중단 돼 버린 것이었다.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음식이 썩어버렸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물자를 구하기가 힘든 밀림 속에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썩은 음식을 버려야 했다.

도착한 다음날 신부님과 나는 도보 산행으로 약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장소인 SIGU공소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 공소는 약 7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상당부분 파손이 되어 모든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공사를 하고 있었지만, 보수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신부님이 직접 진두지휘하기 위하여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나도 신부님과 함께 노동봉사를하기로 했다. 출발 전 저녁식사를 마치고 일찌감치 잠을 청하는데 멀리서부터 점점 크게 들려오는 소나기 소리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출발 당일에는 하루 종일 장대같은 비가 내렸다. 따라서 우리의 공소방문 계획은 취소가 되었고, 비가 그치면 주위 마을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오전시간에 초등학교 교장(Mr. John Karom)의 요청으로 교실을 방문하여 영어발음 교정을 위한 일일교사 역할을 하였고, 4학년을 대상으로는 산수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학교 시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4~5명이 한권의 책으로 공부하고 있었으며, 도서관에는 책이 한권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학교 사무실의 비품상황도 형편이 없었다. 너무나 한심한 꼴이었다. 미래의 주인이 될 이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데, 내가 귀국하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책을 수집하여 보내 주겠다고 결심하였다.

오후에는 빗소리와 함께 마을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우기의 생활을 접할 수 있었다. 그들의 우기 생활은 마치 한국 전 당시 사진으로만 보았던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은 처마 밑에 모여 앉아 마른 야자열매로 불을 지피 추위를 달래고 있었다. 신부님과 나도 그들과 함께 불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BUWAI(부와이: 껌처럼 씹은 후 뱉는 열매)와 DAKA(다까: 지렁이처럼 생긴 나무줄기로써 부와이와 함께 감방을 짚어서 씹는 것), GAMBANG(감방: 조개껍질을 뺀아서 대나무 통에 넣어 구운 흰 가루)을 씹으며 처마로의 안부와 친교를 나누었다. 그들에게 부와이와 다까와 감방은 마로 친교를 나눌 때에 사용하는 (마치 우리들의 담배라고것으로써, 힘든 일을 하면서 이것을 씹게 되면 환각 상태에서 몸의 피곤을 잊게 한다고 했다. 그리고 부와이는 열매로써 그 안에 있는 열매를 빼서 씹고, 길쭉길쭉한 이빨을 문질러 닦았다. 마약 성분이 있는 이것을 원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신부님은 그들과의 의미 있는 자리를 위하여 구강암은 위험(조개의 주성분인 석회질 때문에 구강암 환자가 많음)도 무릅쓰고 계신 것이다. 나도 한 번 시도해 보았으나 입안이 흉할 정도로 빨강게 변하여 다시는 하지 않았다.

선교란 다른 언어와 다른 삶의 풍습 속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선교사 신부님들의 모든 활동이 존경스럽기만 했다. 박영주 신부님께서서는 외방선교회 소속 선교사 신부들은 조국의 부모님이 운명하셔도 통신 연락이 긴급히 되지 않아 운명하신 후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서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신부님들은 현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현지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하셨다. 선교사란 마치 야생화와 같은 존재인 것 같다. 말없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야생화의 자태는 지나가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하지만, 지고나면 어느 누구 하나 찾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우리가 선교사인 신부님들과, 이 신부님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계속)